

두가지 정체성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고(7가지 특권), 둘째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이다. 하나님은 이 시대 우리를 불러 이 두가지의 축복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제자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자다(요20:21의 그리스도의 사도, 고후5:20의 그리스도의 대사).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요14:12-14). 그것이 내 가정과 현장을 살리는 일을 넘어 237 나라와 오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이다. 그 절대 이유 때문에 땅끝까지 갈 수 밖에 없는 증거를 주시겠다고 한 것이다(행1:8). 문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뭔지도 모르고, 당연히 제자의 축복은 더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제자로 선택 받고, 부름 받았는데, 못 깨달으니 못 누리고, 오히려 눌러 사는 것이다(이슈 우화의 독수리 새끼) 제자에 대한 너무 많은 오해들도 있다. 그 어려운 길을 어떻게 가냐고, 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 강하게 훈련시키기도 한다(신32:10-12).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성도가 누릴 평생 축복이다. 본문은 예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갈릴리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 분이 3년간 허락하신 제자 훈련의 키이다. 이 제자훈련의 축복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붙잡고, 훈련 받고, 누려야 할 축복이다. 예배 때 마다 확인하고, 혼자 묵상하면서 확인하고, 24 기도로 확인하고, 모든 문제와 갈등과 위기에서 체험하라.

1. “제자들을 불러 함께 있게 하시고”하고 했다(14절상).

1) 구원받은 순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축복이 이것이다.

① 나와 함께 하시고(With)), 우리와 함께 하시고(Immanuel), 나와 관계된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Oneness)

구원의 시작도 이것이고(마1:23), 구원의 증거도 이것이고(요일5:11-12), 구원의 결론도 이것이다(계21:3)

② 여기서 나온 것이 성도가 누릴 다섯가지의 확신이다(요일5:11-12의 구원의 확신, 요16:24의 기도 응답의 확신, 고전10:13의 승리의 확신, 요일1:9의 사죄의 확신, 요16:13, 잠언3:5-6의 인도의 확신)

2) 그 분이 함께 한 순간부터 우리는 그분의 것 세가지를 가지고 있다.

① 그분의 생명이 함께 한 것이다(예수 생명).

그 생명은 거듭난 생명이고(요3:5), 새생명이고(롬6:4), 멸망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다(요5:24)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의 DNA가 있다(“거룩한 씨”). DNA 가진 대로 나온다. 훈련시키면 엄청난 것이 나온다.

② 그분의 권세가 나와 함께 한 것이다(예수 권세)

벧전2:9에 모든 성도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신 이유다.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자들이다. 모든 아픔,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훈련시키고, 나 같은 사람 살리는 증거가 되게 만드시는 것이다.

③ 그 권세에서 나오는 것이 능력이다(예수 능력)

마가 다락방의 연약한 성도들이 집중 기도와 정시 기도를 통해 그 능력을 누린 것이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24 기도가 훈련되면(엡6:18) 모든 것(약점, 아픔, 실패,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것을 “누린다”고 한다(살전5:16-18). 인생을 눌러 살지 말고,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회복하라.

3) 여기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나온다(연약의 여정)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내 인생 속에 나타나는 것이다(여기서 나오는 것이 내 인생의 확신).

2. “그들을 보내어 전도도 하게 했다”고 했다(14절하)

1)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축복을 누리니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전도이다.

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모든 환경에서 인생을 축복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이다(요셉, 이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모든 위기에서 인생을 살리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이다(다니엘, 바울)

마침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보고, 그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다(벧전2:9)

② 내 인생(하는 일, 학업, 산업, 아픔, 고통까지)이 증거가 되게 만드는 것이다(행1:8)

전도는 누구를 가르치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분을 간증하는 것이다.

2) 이 응답과 축복이 지속되다보니까 사람들이 내게 오는 것이다(되어지는 전도, 플랫폼의 전도, 망대의 전도)

① 모든 사람, 열방과 왕들까지 오고, 그들의 재물(빛의 경제, 선교 경제)까지 돌아온다고 했다(사60:1-5)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복음 누리면서 기다리라. 전도도 기도하면서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라(시간표).

② 어느날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올 때 정확히 그리스도를 말해줄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강단 메시지를 포럼하고, 정리하고 묵상하는 이유다. 그것이 나온다. 구원의 길과 여러 전도 훈련하는 이유다.

3) 여기서 순례자의 여정이 나온다.

부족하고, 상처 가득하고, 작아 보이는 내 인생이 예배가 되고,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이다.

3.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15절)

1) 올바르게 신앙 생활을 하고, 선하게 사는 데 어려움, 고통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의 욕이 그랬다.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의미도 있다(약1:2-3, 욥23:10). 거기에 마귀 역사도 사용된 것이다. 영적인 눈을 열어 주어 숨겨진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욕기의 결론이고(욥42:5), 그 이후에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욥42:10)

2) 이제는 모든 갈등, 고통, 실패의 배후에 사단의 역사를 보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 싸우고 승리하라.

① 첫 인생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무너졌다(창3:5). 달콤한 속임수에 당했다.

가인이 여기서 무너져 동생을 죽이는 실패를 했다(요8:44). 은혜 받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당한다.

사울왕이 여기서 무너져 늘 번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다가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난다(삼상16:14-15)

가룟 유다도 그 사단이 들어가 예수님을 배신했고(요13:27), 중직자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게 무너졌다(행5:3).

② 제자 훈련을 통해 귀신을 쫓는 권세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권세를 깨닫고, 영적 싸움을 하는 훈련을 한 것이다(엡6:10-11의 전신갑주의 의미).

기도 속에서, 내 문제 속에서, 전도와 선교 현장 속에서 영적 사실을 보고, 승리의 증거를 체험하는 것이다.

3) 여기서 승리자의 여정, 정복자의 여정이 나온다.

우리는 모든 일(학업, 산업)과 문제와 사건에서 승리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 축복을 위해 도전하라.

결론-제자는 다 가진 자들이다. 다 뛰어넘을 수 있다. 다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훈련시키고 있다. 어떤 문제, 고통, 아픔, 역울한 일이 있는가? 제자 훈련이다. 이 축복으로 승리하는 참 제자로 서기를 축복한다.